10.15686/fkl.2024..62.69 OPEN ACCESS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와 여성의 고통받는 몸

-『베틀』, 『나눔터』,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중심으로

이소영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목차

1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의 관계
2 여성의 '고통받는 몸'과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
3 고통에 대한 애착과 기만 사이
4 잿더미에서 나를 꺼내줘

아아! 슬프다! 안녕히! 내가 죽었다네! 나를 잊지 마! 아야이!
나를 기억해! 돌아올 거야!
잿더미에서 나를 꺼내 줘![1]

국문초록

이 글은 1990년대 페미니즘적 전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의 관계를 '접촉'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1990년대 초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던 당시에 성폭력 개념 논쟁에 주목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에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며, 번역하였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때 여성 단체들의 소식지인 『베틀』과 『나눔터』는 여성의 고통을 개념화·의제화·법제화하기 위해 증언 문화에 의존하였고, 이는 역으로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을 축적하게 만들었다. 한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고통받는 몸과 접촉하는 장면을 빈번하게 그림으로써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평 담론의 차원에서 이 텍스트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과 연결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성폭력의 연속선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애착과 기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페미니스트를 형상화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당대 페미니즘 정치와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이 텍스트는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대해 문학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문핵심어: 접촉, 여성의 고통받는 몸, 성폭력 특별법, 『베틀』, 『나눔터』, 증언 문화, 정동적 가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성폭력의 연속선, 애착, 기만, 문학

1 엘렌 식수, 이혜인 역, 『아야이! 문학의 비명』, 워크룸 프레스, 2022, 15쪽.

1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의 관계

1990년대 문학 연구, 특히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 연구를 수행할 때,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려는 목적으로 '동시대성'을 발견해 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욕망을 마주하곤 한다. 그러한 욕망은 199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문학적 실천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페미니즘 정치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동시대성'에 대한 주목이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과거의 부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동시대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여전히 살아 있고 생기 있는 강렬한 감각"을 지닌다는 점에 대한 통찰을 수반해야 한다.[2]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1990년대 페미니즘의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생생하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샹탈 무페의 구분법을 따르면, '정치'란 특정 질서의 수립을 통해 인간의 공존을 조직하고자 하는 실천, 담론, 제도를 가리키며, '정치적인 것'은 여러 형태를 취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하는 적대를 뜻한다.[3] 하지만 전자와 후자를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는 무페가 말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이 끊임없이 뒤얽히는 복잡한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적인 것'이 정동의 차원에서 포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무페 역시 적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동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4] 이러한 측면에서 비가시적인 정동을 가시화하는 재현의 영역이 중요하게 부상한다. 즉,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의 풍경을 선명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맞서고자 했던 제도와 이에 대한 담론과 실천, 그리고 재현의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여성이 겪은 폭력, 피해, 차별의 경험이 페미니즘 정치의 핵심을 차지해 왔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성이 고통을 증언하는 일은 페미니스트 주체와 페미니스트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성의 고통을 사

2 프루던스 체임벌린, 김은주·강은교·김상애·허주영 역, 『제4물결 페미니즘: 정동적 시간성』, 에디투스, 2021, 81쪽.

3 샹탈 무페, 서정연 역, 『경합들』, 난장, 2020, 33쪽.

4 위의 책, 88-90쪽.

소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이들, 함께 모여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주장을 펼친 이들이 페미니스트 주체, 나아가 페미니스트 집단이 된 것이다.[5] 그러나 실제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이 맺는 관계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통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기실 고통은 고통을 겪는 이와 고통을 겪지 않는 이 사이에 완전한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통을 겪는 사람의 현실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의 현실은 완벽하게 다르다. 이와 같은 고통의 공유 불가능성은 고통이 언어에 저항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히 육체적 고통은 언어에 저항하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를 적극적으로 분쇄해 버릴 뿐 아니라, 언어 이전의 소리와 울부짖음으로 돌아간다.[6] 이러한 고통의 성격을 떠올려보면, 여성의 고통을 개념화·의제화·법제화하는 매 순간이 분투의 기록이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분투의 흔적은 1990년대 초,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1년 9월 9일,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인 초청 간담회' 이후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부장인 신윤옥은 "대개의 사람들은 남희순씨 보다는 김부남씨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여기서 남희순은 아내 구타의 피해자이며 김부남은 아동 성폭행의 피해자이다.[7] 그

5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68쪽.

6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오월의봄, 2018, 7-8쪽.

7 조애나 버크는 성폭력 연구에서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희생자'와 '생존자'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수십 년간 페미니즘 중 어떤 사상적 흐름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해 왔으나, 그는 이 용어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다. '생존자'라는 표현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 '이전'과 '이후'에 기반한 것으로 구성하여 가해자의 행동의 관점에서 희생자가 스스로를 (재)규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율성,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에 대한 미국적 이데올로기에 젖은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한) '생존자'와 (나쁜) '가해자' 간의 이분법은 가해자들이 성 학대의 생존자일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편, '희생자'라는 표현 역시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희생자'는 보통 여성화되고,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특히 미국의 신자유주의 담론에 따라 '잘못된 선택'이나 '생활방식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그는 문맥에 따라 '희생자'와 '생존자'라는 표현을 번갈아 쓴다. 조애나 버크, 송은주 역, 정

런데 사람들이 남희순보다 김부남을 더 오래 기억하리라는 말은 그만큼 "아내 구타문제를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8] 이는 결국 성폭행뿐만 아니라, 아내 구타까지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의 전화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신윤옥의 글이 '정당인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실무자가 "성폭력에 아내구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었다는 점이다.[9] 여성의 전화 측과 달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강간을 비롯한 성적 희롱, 추행 등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의 차원에서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있었다.[10] 이는 1991년에서 1992년에 걸쳐 여성 운동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개념 논쟁의 일단을 드러낸다.[11] 여성의 전화 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 간의 입장 차는 페미니즘이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희진 해제, 『수치』, 디플롯, 2023, 47-49쪽.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고통당한 여성들을 '피해자', '생존자', '내담자', '필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문맥에 따라 표현하고자 한다.

8 여기서 언급된 남희순은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다. 여성의 전화 측은 이 사건이 기사화되자 남희순의 석방운동을 주도하였고, 남희순은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상담부, 「긴급발언대 결혼 10년만에 얻은 이름, 살인자-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 『베틀』 제51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1.3.10., 2-3쪽; 「여성인권소식 남희순씨 사건」, 『베틀』 제55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1.8.20., 14쪽. 김부남은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21년 후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북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11개 단체에서 김부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부남의 석방운동을 벌였으며, 김부남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았다. 「알립니다 성폭행 남자 살해죄로 구속중인 김부남씨 석방운동 전개」, 『베틀』 제55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1.8.20., 15쪽; 「알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씨에 유죄판결」, 『베틀』 제56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1.9.20., 16쪽;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남씨 항소하기로」, 『나눔터』 제2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10.30., 3쪽. 신윤옥의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 신윤옥, 「물리적인 폭력과 성관계에 의한 폭력」, 『베틀』 제56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1.9.20., 2쪽.

9 신윤옥, 위의 글, 2쪽.

10 김정희, 「성폭력 관련 개념의 정리를 위하여」, 성폭력추방운동 정책토론회 자료, 1992.2.12.;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22쪽에서 재인용.

11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성폭력 개념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신상숙, 위의 글.

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집단들 사이에 일종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이러한 긴장은 결국 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윤옥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여성의 전화 측은 "성폭력이란 단지 성(sex)을 매개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보기 앞서 그 행위(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에게 폭력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폭력을 성폭력이라 규정"한다. 이에 "아내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인신매매, 성추행, 성적 희롱, 강제적 성관계 그리고 성차별적인 제도와 여러 현상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성폭력 개념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13] 즉, 이들은 여성의 고통이 발생하는 조건, 즉 여성이 남성보다 보편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아내 구타나 성폭행을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협의의 성폭력 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통의 강렬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조성숙은 '강간'이라는 용어 대신 쓰이는 '성폭행'이 강간을 한낱 '폭력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강간이 야기하는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강도가 축소·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부남씨의 말처럼 '짐승' 같은 행위를 체험한데서 그는 충격, 수치심, 자기 모멸감, 공포, 육체적 고통, 자책감, 자기부정, 여자라는 한, 가해자에 대한 원한 등등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정서적 상태가 복합된 '추악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면서 "10대의 성범죄와 어린이성폭행이 만연하는 지금의 강간을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14]

이렇듯 페미니스트들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페미니즘이 맞서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누군가의 고통

12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76쪽.

13 신윤옥, 앞의 글, 2쪽.

14 조성숙, 「성폭행의 현실과 인식의 괴리」, 『나눔터』 제2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10.30., 5쪽.

이 더 오래 기억될지가 결정된다면 페미니즘 정치에서 고통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페미니즘 정치에서 고통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이 고통에 반응하고, 해석하며, 번역하는 작업을 보다 메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하기보다는 '접촉'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접촉이란 사라 아메드의 시각을 참조한 것으로, 아메드는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감정이 형성된다고 이해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감정의 전염 모델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감정의 전염 모델이 감정을 소유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와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착각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같은 느낌을 공유한다고 할 때도 모두 그 느낌과 동일한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즉, 우리가 느낌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대상인 것이다.[15] 나아가 아메드는 대상이 순환함에 따라 정동적 가치를 축적한다고 보았다.[16] 이는 정념을 무언가를 축적하려는 추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동은 대상이나 기호에 내재하지 않으며, 대상과 기호 사이의 움직임에 따른 효과로 나타난다. 대상과 기호 사이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대상과 기호는 더 많은 정동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17]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고통에 대해 서로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간주하는 대신,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강렬한 감정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고통받는 몸들'이 순환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이에 접촉한 이들의 몸에 서로 다른 정동을 각기 다른 강도로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정동적 가치가 다시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어렴풋한 형상을 창조하고, 페미니즘이 맞서야 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여기

1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5-43쪽.

16 위의 책, 464쪽.

17 위의 책, 108쪽.

서 어렴풋한 형상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어떤 몸은 누락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수행해 온, 고통에 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을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접촉의 역사"로 읽어낼 수 있게 만든다.[18]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텍스트는 크게 여성의 전화의 '소식지'인 『베틀』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인 『나눔터』, 그리고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다. 『베틀』과 『나눔터』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던 시기에 발간한 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고통을 공론화하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실천과 전략을 의미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 순환되면서 어떤 정동적 가치들을 형성했는지를 파악해볼 것이다. 한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탄생한 소설로서 작가 스스로도 여성의 전화에 나가서 취재하고 여성 문제를 다룬 잡지와 논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을 밝혔을 만큼 동시대와의 호흡으로 쓰일 수 있었던 작품이다.[1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 텍스트를 둘러싼 당대적 맥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의 세 여성 인물인 혜완, 경혜, 영선 중 특히 혜완에게는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 곳곳에서 현상한다. 더욱이 이 소설은 영선의 자살 시도 소식을 알리는 전화로 시작하여, 영선의 죽음을 전달하는 전화로 끝맺고 있다. 그만큼 영선의 고통이 서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의 고통은 깊이 있게 분석된 바가 없다. 이는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강민주의 죽음과 관련지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두 소설 모두 여성의 자살 혹은 타살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은 텍스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대로 애도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경험한 폭력은 그 당시 성폭력 개념 논쟁에 비추어 봤을 때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담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결국 협의의 성폭력 개념으로 논쟁이 일단락되었음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죽음이 애도의 대상이 되지

18 위의 책, 373쪽.

19 공지영,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상처 없는 영혼』, 도서출판 푸른숲, 1996, 181-182쪽.

못한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20] 이는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에서 재현의 영역이 '정치'로 합수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의 잔여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결국 본고에서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 정치에서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대해 문학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2 여성의 '고통받는 몸'과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

일레인 스캐리는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집단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의 소식지를 예로 들며 핵심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현실을 고통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능란하면서도 급박한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통의 단절, 공유 불가능성 등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캐리가 강조하듯이 소식지의 목적은 독자가 고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 그러나 스캐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지점은 소식지의 그러한 목적이 자칫하면 타자의 고통을 단체와 독자의 것,

---

20 소영현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로 정치적 해방의 목표가 세분화되면서 문학장에 사라진 여성을 애도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한다. '사라진 여성'에 대해 '애도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서사에서 '여성-애도-서사'의 계보를 제시한다.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한국현대문학의 연구』 제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참조. 김은하는 80년 광주항쟁을 통해 국민/비국민,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여성 역시 애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평이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진보적 정치 주체로서 80년대 여성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공지영을 꼽는다.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36-137쪽. 두 연구를 통해 이해해 보건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들의 애도 작업이 철저히 조건부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애도하는 여자들만큼이나 텍스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대로 애도받지 못하거나 애도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21 일레인 스캐리, 앞의 책, 15-16쪽.

즉 타자를 제외한 '우리'의 것으로 전유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22] 『베틀』 제51호에 실린 「결혼 10년만에 얻은 이름, 살인자-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에서 이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 그후 이대 부속 병원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남희순씨를 만날수 있었다. 수술한 후 겨우 실밥을 뺀 상태로 퇴원조치가 되어 경찰로 이송될 처지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연약한 모습의 남희순씨는 아직도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경직된 상태였다. 자기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난다며 아들걱정만 하고 있었다. 「여성의 전화」에 대한 소개를 하며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더니 고마와하며 수술 후의 통증으로 괴로운 상태인데도 차분하게 그간의 생활과 사건경위를 얘기해 주었다. 죄값은 얼마든지 치루겠지만 아들과 앞으로 같이 못살게 될까봐 매우 불안해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구타받는 결혼생활 10년의 결과로 얻게 된 살인자라는 이름. 그리고 그간의 구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특히 어린 아들의 상처는 평생이 가도 치유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다.** 아내구타의 원인은 가부장제에 있으며 아내구타의 근원적 뿌리는 가해 남성들의 개인적 폭력성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처에 지금도 있을 제2, 제3의 남희순씨의 희생을 막기위해서 하루 빨리 가정내 폭력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타 법안이 마련되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23]

이 글은 앞서 언급되었던 남희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남희순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여성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남편의 극심한 폭력에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다. 여성의 전화 측은 이 사건이 "살인적 아내구타 습벽이 부른 자기보호의 몸부림이며 정당방위"라고 간주하고 남희순의 구명

22 사라 아메드, 앞의 책, 58-60쪽.

23 상담부, 「결혼 10년만에 얻은 이름, 살인자-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 『베틀』 제51호, 여성의 전화, 1991.3.10., 3쪽.

운동을 벌이기로 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남희순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어떻게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자, '남희순씨의 성장배경 및 개인사', '남편의 성장배경 및 개인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 및 묘사한다.[24] 위 인용문은 이 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성의 전화 측이 생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인용된 부분에서 수술 직후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굵게 인용한 부분에서 생존자의 고통, 즉 "그간의 구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특히 어린 아들의 상처"로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 것은 필자인 '상담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생존자에서 '상담부'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전유는 사라 아메드가 이야기하듯이 타자의 고통을 필자의 슬픔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어떤 면에서 지워버리는 측면이 있다. "도처에 지금도 있을 제2, 제3의 남희순씨의 희생을 막기위해서 하루 빨리 가정내 폭력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타 법안이 마련되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문장은 단체와 피해자를 동등한 관계에 두지 않는다. 필자의 슬픔과 다짐이 생존자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타자를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의 대상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단체의 슬픔과 다짐은 독자도 피해자의 고통에 슬픔을 느끼고 아내 구타 관련 법안을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언 명령이다.[25] 그래서 어떤 글들은 독자가 이러한 정언 명령을 저항감없이 받아들이도록 주어를 '우리'로 설정함으로써 타자와 단체, 그리고 독자 사이의 차이를 무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나눔터』 제4호의 김보은·김진관 사건을 다룬 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이처럼 우리사회는 이들의 입을 꼭꼭 막아 두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었기에 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속에서 너무나 숨이 막혀서 이들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나? 현재 우

24 위의 글, 2-3쪽.

2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59쪽.

리 상담소에 접수된 170여건의 다른 근친강간 사례들도 어쩌면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내담자 들의 대부분이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가족이 알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한결같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머리로 판단하여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근친강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행동 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았는가?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런 희생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보은, 진관을 단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26]

위 인용문은 김보은·김진관이 가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근친강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주어에서 내용상 타자, 곧 희생자들은 사라져 있다. 결론부의 내용에서도 이 글의 주인공은 타자가 아니라, 단체와 독자를 포함한 '우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샌가 타자가 고통을 극복하는 일보다, 타자를 제외한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본고에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 단체들의 활동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의 전유를 인식함으로써 고통을 통한 정치의 어려움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베틀』이 창간 초기부터 이러한 고통의 전유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여성의 전화 측은 『베틀』 제4호부터 「상담사례」란을 새로 마련한다. 이때 「상담사례」란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번호부터 "상담사례"란을 새로이 마련했다. 물론 피상담자들의 말못할 사정은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어서 공개함이 온당치 않음을 안다. **그러나 아픔과 수모의 동굴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함께 묶어 힘껏 외치**

26 이미경,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눔터』 제4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7.1., 5쪽.

는 것이,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행동임을 믿는 분들의 개별적 허락을 얻어 여기에 밝히게 되었음을 알린다.[27]

위의 대목은 피상담자들의 고통을 공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코너를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상담사례」는 내담자의 "나이", "결혼년한", "학력", "자녀" 등의 간단한 정보를 제시한 뒤, 내담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글의 끝 부분에는 상담원이 내담자의 사연을 대신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상담원의 이름을 명시해 두었다. 이렇듯 상담원의 이름을 밝혔다는 점은 상담 내용이 일정 부분 상담원에 의해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측면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즉 타자의 고통은 항상 '번역 작업'을 거쳐야만 대변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28] 또한 「상담사례」 기획은 상담원의 생각을 따로 부기하지 않고 타자의 매개된 고통에 대한 판단을 오롯이 독자에게 맡긴다. 제5호에서 「상담사례」는 '여성의 전화 상담실'의 이름으로 제시되면서 "이 글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실었읍니다. 이 분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분을 기대합니다. 훌륭한 상담내용(원고지 4매)은 베틀지에 싣겠읍니다."라는 설명이 추가된다.[29] 우선 이름을 바꾼 것은 상담원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내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독자의 조언을 요청하는 대목은 단체가 타자의 고통을 번역하는 선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하고, 대신 독자가 적극적으로 타자의 고통에 대해 반응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이 점은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대해 독자가 어떤 정동을 느꼈는지를 추적해볼 수 있게끔 한다.

---

27 김계정, 「상담사례(1) 남편은 언니 동생을 번갈아가며…」, 『베틀』 제4호, 여성의 전화, 1984.7.30., 11쪽.

28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70면.

29 여성의 전화 상담실, 「상담사례(2) "구타하는 남편 없는 편이 평화로와"」, 『베틀』 제5호, 여성의 전화, 1984.9.30., 10쪽.

제6호의 「상담사례」에서 내담자는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회사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약혼자와 사장에게 육체적 폭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당한다. 약혼자는 모든 것을 용서하겠으니 결혼하자고 하지만 피해자는 약혼자도 무섭고 사장도 원망스러운 상황이다.[30] 이에 대해 대학원생임을 밝힌 독자의 글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저는 귀하의 사례를 읽고 왜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자가 생겨야만 하는가 생각했읍니다. 귀하는 이것이 귀하에게만 닥쳐온 불행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그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귀하는 왜 이번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됐읍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차분히 냉정하게 이번 일을 생각해 봅시다.
>
>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동기는 사장님에 대한 잘못된 동정으로 시작하여 순간적인 쾌락에 젖어든 귀하의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귀하에게는 사귀는 남자도 있었고, 사장님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언니들과 같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들과 달리 사장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우월감 속에 젖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언니들 보다도 처참한 결과를 가져 왔읍니다.
>
> 그러나 그 이전에 귀하는 이번 일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겨만 왔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사장님과 같은 남자들이 뉘우침도 없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타와 부당해고의 문제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잘못은 귀하와 사장님이 같이 했는데 왜 책임은 귀하만 져야 합니까? 또, 왜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직장 일에 영향을 주었읍니까? 이것

30 상담부, 「상담사례(3) “사장님께 당하고 약혼자에게 들키니 남자들이 두렵기만”」, 『베틀』 제6호, 여성의 전화, 1984.11.30., 8쪽.

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것에 대한 합법적인 책임추궁 없이는 사장님의 잘못된 행위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언제나 감추고 참고 지내야 하겠읍니까? 우리는 언제나 짓밟히고 사는 잡초가 아닙니다. 서로 뭉쳐 자라는 잔디입니다. 짓밟히고 숨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귀하를 위해, 귀하와 같은 일을 당했거나 당하게 될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사장님의 바른 삶을 위해-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겠읍니다.[31]

독자는 내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귀하는 왜 이번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됐읍니까?"라고 거듭 질문을 던지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독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차분히 냉정하게 이번 일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내담자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내담자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와 같은 독자의 '분노'는 폭력을 저지른 남성들보다도 내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지닌 '분노'의 정동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으며, 상당히 강렬하다는 점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과거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겨만 왔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사장님과 같은 남자들이 뉘우침도 없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는 서술은 결국 독자의 분노에는 내담자가 겪은 '고통'이 내담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종속의 역사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동반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독자가 지닌 분노의 정동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며, 독자는 '우리'='서로 뭉쳐 자라는 잔디'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페미니스트 집단으로 정체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짓밟히고 숨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잘못된 행위를 고쳐 나가야 하는 주체에 '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일종의 거리두기를 은연중 드러

31 박은미, 「상담사례를 읽고 "호사와 낭만이 사랑일 수는…"」, 『베틀』 제7호, 여성의 전화, 1985.1.30., 8쪽.

낸다.[32]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 대한 거리두기는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성폭력 특별법에 아내 구타 문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여성의 전화 측은 별도로 아내 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내 구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베틀』 제63호에 이제는 후원자가 된 '쉼터 내담자'의 후기를 싣는다.

> 여성의 전화 상담자인 이선생에게 집으로 전화가 왔다. 종로 태화사회복지관에서 "매 맞는 아내, 깨어진 삶"이란…
>
> 나는 외출을 삼가고 있어서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여성의 전화와 인연을 맺고 있는 터라 바삐 옷을 갈아 입었다. 나는 쉼터를 거쳐 후원자로 있었던 것이다.
>
> **오랜만의 외출은 자유로움 보다는 어떤 억압의 행태로 다가왔다.**
>
> 지하 빌딩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각종 매스컴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장내를 천천히 둘러 보았다. 벽에 붙은 표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
> '때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 '아내 구타는 범죄 행위이다.'
>
> '맞을 짓이란 없습니다.'
>
> '뺨 한 대가 살인까지 간다.'
>
> 그렇게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나는 얼른 메모지를 꺼냈다.
>
> **나에게 억압의 실체는 없다. 수첩의 부호속에 이런 문장을 성립시켜**

32 이후 『베틀』에서 「상담사례」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 제8호까지는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제9·10호에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제14호에 이르러서 다시 독자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러나 독자의 반응이 없었던 것인지 제15호에서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해 호소하는 사례를 모아 제시하며 독자의 제언을 기대한다는 공지를 싣기도 한다. 제16호부터는 대체로 상담원의 시각에서 내담자의 사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베틀』의 편집 방침이 고통받는 여성과 독자 사이의 매개자로서 『베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놓았다.

'자아를 잃어 버린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힘겹게 싸운다. 그러나 외부의 힘에 방해받는다. 방해자가 철저히 승리한다. 그녀는 자신을 잃고 오직 하등동물로서 살아남는다'

이 글의 요지는 우리가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이상 인간 선언을 해야 하고 하등동물로써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 사례별로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은 곳에 시선이 멈추었다. 세상에는 미추가 공존하고 있다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무서움이 일었고, 극도의 성격파탄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그들의 용기가 가상했다. 행사진행은 피해자의 육성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

돌아오는 길에 나의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유로워야 된다. 나는 정말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독립된 인격체로 홀로 서 있는가? 김부남 사건에 이어 김보은 사건이 터졌다. 앞으로 더이상 이사회에 폭력으로 희생되어 가는 여성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힘없고 핍박받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전화가 그들의 깨어진 삶을 보듬어 주리라 믿는다.[33]

필자는 스스로를 '후원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글쓴이의 이름 옆에 적힌 '쉼터 내담자'라는 설명은 이 글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게 한다. 필자는 아내 구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서면서 "자유로움"보다는 "어떤 억압"을 느낀다. 그리고 아내 구타를 반대하는 표어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억압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달리 그가 수첩에 남긴 메모는 그가 경험했던 폭력의 비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그 글의 요지가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이상 인간 선언을 해야 하고 하등동물로써

33 강윤신, 「공개토론회를 마치고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아내구타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베틀』 제63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2.7.10., 11쪽.

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어 피해자의 육성 증언으로 시작한 공개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한 뒤, 필자는 앞서 억압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나의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이야기하는 대신 "자유로워야 된다"는 구호를 되뇌는데, 뒤이은 질문들은 이러한 구호 자체가 그를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의 말미에서 글쓴이는 아내 구타와 관련 없는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전화 측에서 "그들의 깨어진 삶"을 보듬어 주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글쓴이가 '아내 구타'라는 고통에서 회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는 페미니즘 정치에서 고통을 운동의 토대로 삼는 것의 위험성을 적실하게 드러낸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 순환되면서 슬픔, 분노, 회피, 공포, 적대 등의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이 축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은 페미니즘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베틀』에서 한 상담원은 상담자 교육을 받고 "억압된 현실을 토론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이런 느낌을 좀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하며 배우리라는 다짐"을 되새기기도 한다.[34] 『나눔터』에서도 "피해여성의 이야기가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 "한동안 무척 우울한 나날을 보냈"지만, "상담원으로서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상담을 통해 내 몸과 가슴과 머리가 함께 다니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상담원의 수기를 찾아볼 수 있다.[35]

---

34 정태림, 「14기 상담자 교육을 받고」, 『베틀』 제51호, 여성의 전화, 1991.3.10., 12쪽.

35 안연선, 「상담을 하며 피해 여성 고통 머리속 떠나지 않아」, 『나눔터』 창간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7.30., 11쪽. 물론 여성 단체들의 소식지에 부정적인 정동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여성도 있었으며, 사무 봉사자로 일한 대학생은 "주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갖가지 여성의 피해를 대변하는 일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보람"과 "희망"을 느끼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화순, 「상담원 교육을 받고나서 성차별 없는 사회의 디딤돌이 되리라」, 『나눔터』 제5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10.28., 13쪽.; 박수미, 「순진무식하고 천진난폭한 여대생의 비애」, 『나눔터』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운동이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체들이 고통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36] 이러한 어려움은 증언 문화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사라 아메드에 따르면, 증언 문화란 "고통과 상처의 서사가 급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대한 재현의 증대는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을 강화하면서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착각을 야기한다. 이는 여성이 고통을 겪어온 역사를 일시에 지워버리고 여성의 정체성이 곧 '고통'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37] 즉,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을 겪을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경자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 곧 "오랫동안 남성우월주의의 폭력성에서 살아내며 터득되어 길들여진 여성의 자기비하의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내 폭력 운동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매맞는 아내는 영원히 여성의 숙명성"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38] 이렇게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는 페미니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맞서고 있었던 대상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3 고통에 대한 애착과 기만 사이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대한 애착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 순환되면서 쌓인 부정적인 정동적 가치들로 인해 고통이 곧 여성의 정체성으로 의미화될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제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3.1.31., 14쪽. 다만,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 정치와 고통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소식지에 담긴 다채로운 정동들을 모두 포괄해서 다룰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36 다른 맥락이지만, 박완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2년 정도 활동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가 그만둔 이유는 "내 능력으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던 무력감" 때문이었다. 박완서, 「추천의 글 여성들의 새로운 글쓰기에 붙여서」,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린비, 1993, 10쪽.

37 사라 아메드, 앞의 책, 82쪽.

38 이경자, 「심사평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린비, 1993, 250쪽.

소식지의 형식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우선 소식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집단적 과제에 복무하기에 역설적으로 고통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을 고통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능란하면서 급박한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39]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은 다음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로 여성들의 고통을 감소하고자 하는 소식지가 정작 고통 이후의 삶, 즉 치유와 회복의 서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상담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는 내담자의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는 하나, 소식지의 특성상 전체 지면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었다.[40] 둘째는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로 소식지를 통해 반복 재생산되는 '여성의 고통받는 몸'의 형상은 어렴풋할 뿐, 결코 여성의 고통받는 육체의 실체를 모두 담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표상은 특정 시기에 여성 단체가 집중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연동되어 있기에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 어떤 몸들을 누락시킬 수 있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여성 단체들이 협의의 성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광의의 성폭력을 겪는 여성들의 몸은 괄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학은 여성의 고통받는 몸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페미니즘 정치가 제도, 담론, 실천, 그리고 재현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소식지가 기록한 '여성의 고통받는 몸'과 소설이 형상화한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여기서 엘렌 식수의 『아야이! 문학의 비명』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저서는 식수가 한 학술대회에서 받았던 주제인 '문학을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응답이었다. 식수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글쓴이의 젠더와 무관하게 새로운 여성을 도래하게 하는 글쓰기를 "여성적 글쓰기"로 명명하였으며, 여성의 "또 다른 양성성"으로부터 환대하는 글쓰기의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환대의 범위를 망자(亡者)에게로, 삶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존재에까지 확대한다. 그는 "애도를 품는 문학, 즉 망자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삶을 주는 문학"을 수행하고자 하

39 일레인 스캐리, 앞의 책, 15-16쪽.

40 「여기는 상담실」, 『나눔터』 제7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3.4.28., 5쪽.

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애도가 망자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으로 그 빈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식수의 "상상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문학은 애도 작업을 결코 끝내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설 자리를 잃은 온갖 감정과 인물에게 끊임없이 자리를 내어 주고 삶을 고수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다.[41]

이러한 의미에서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결락된, 여성의 또 다른 고통받는 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동시에 고통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여성의 전화 측이 제시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의 세부적인 양상들은 중심 인물인 혜완, 영선, 경혜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42] 혜완은 육아 문제로 전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아이를 잃은 뒤, 전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강간을 당한다. 영선은 영화감독이 되고자 하는 꿈조차 포기하고 남편에게 헌신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정신적 학대 및 폭력을 겪는다. 경혜는 출산 이후 남편의 외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신도 바람을 피며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43] 이외에도 혜완의 문단 후배는 술자리에서 기성 문인들에 의한 성희롱에 시달린다. 이

41 여기서 '또 다른 양성성'이란 "성차(性差)를 지우지 않고, 모든 조합을 아우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혜인, 「옮긴이의 글」, 엘렌 식수, 이혜인 역, 『아야이! 문학의 비명』, 워크룸 프레스, 2022, 105-106쪽.

42 본고에서는 '성폭력'을 성폭력 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 운동 내에서 논의되었던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성을 경시하는 말, 여성에 대한 희롱, 강제적 성관계, 물리적 구타 등"을 가리킨다. 『베틀』 제12호, 여성의 전화, 1986.2.28., 14쪽; 신상숙, 앞의 글, 13쪽에서 재인용. 이는 '성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시대에 따라, 지리적 영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조애나 버크의 지적을 참고한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성폭력을 "참여자, 희생자 혹은 제삼자(유아, 아주 어린 아이들, 학습장애가 심각한 사람들의 고통은 제삼자가 설명해주는 수밖에 없다)가 성폭력으로 인정한 모든 행위로 정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별화된 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 작용의 구성 요소를 전부 문제화하고 역사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법적 신조"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조애나 버크, 앞의 책, 28쪽.

43 여성의 전화 측에서는 가정 폭력에 관한 앙케이트에서 "하늘처럼 알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 가져 온 육체적 고통 이상의 정신적 아픔과 수모에 견딜 수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평화의 실을 짜자」, 『베틀』 창간호, 1983.10.1., 여성의 전화, 1쪽.

때문에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 언론에서는 "결혼한 남녀 사이의 성차별 또는 착취"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44]

> 이 작품 속에서 교양있는 남자들은 아내를 복종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먹을 휘두른다. 남편들은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섹스도 서슴지 않는다. 여자들은 버스 안의 신문파는 소년에게 추행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그저 몸만 떨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딸만 둘을 내리 낳은 여자는 세 번째 아이로는 아들을 얻기 위해 몇 번씩이고 임신중절을 강행한다.[45]

위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출간 초기만 해도,『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아내 구타 및 강간과 성추행, 여아 낙태 등 "성적 불평등 문제"를 깊이있게 천착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었다.[46] 그러나 간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소설은 "여성의 이혼 등 사생활을 상품화하는 풍토"에 휘말린다. 〈주부생활〉에서 공지영에게『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절대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기사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어긴 것이다.[47] 이에 공지영은 "기사에 소설의 내용과 소설가 개인의 이야기를 함께 실어 소설 내용 가운데 이혼한 '혜완'이 마치 소설가 자신인 것처럼 보이게 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작가의 사회적·문학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잡지를 본 문단 동료나 친지들 대부분이 '3년이나 지난 이혼 이야기를 팔아 책을 더 팔 속셈이냐' '삼류적 발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48]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사실

---

44 「공지영씨 새장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정의 성차별 구조 해부」,『한겨레』, 1993.1.12.

45 위의 글.

46 위의 글.

47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도 혜완이 첫 장편소설을 내고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했을 때, 작품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사생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실린 에피소드가 나온 바 있다.

48 「"이혼 여성 사생활 보도 명예 훼손"」,『한겨레』, 1993.4.7.

여부를 막론하고 공지영이 스스로의 고통을 소설화해서는 안된다는 문단 동료 및 친지들의 사고 방식이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로서 자신의 상처를 탐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여성 혐오적 인식이 개입되었음을 드러낸다.[49]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여성 독자들이 "책장을 넘길수록 우울하고 착잡"한 심경을 느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주부 독자는 그러한 심경의 원인으로 이 작품이 "가족 이기주의에 젖어 아무런 사회 의식 없는 대상으로 여겨져 온 중산층 주부들의 참된 속모습이 사실은 어떠한 빛깔인지 정직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는데,[50] '참된 속모습'이 뜻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실린 유현미의 해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현미 역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내내 "불편한 심정"임을 토로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문제여성들이 아무래도 나와는 쌍둥이 자매들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도 대충 알고 있던 문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적당할 때 누구나 긴장하게 마련인 것처럼 결국 공지영의 지독하게 정직한 지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 자신을 보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고백한다.[51] 이는 그동안 여성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명백하게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사소함들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52] 사라 아메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래서 감각적 확실성을 지닌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일, 따라서 세계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라보는 일을 '비판적 경이'라고 표현한다.[53] 이 텍스트가 드러낸 여성들의 고통은 그 당시 개념화조차 되어 있지 않

49 신나리,「'여성이 여성의 고통을 쓴다는 것'에 관한 고찰: 레슬리 제이미슨의「여성 고통의 대통일 이론」과 김혜순의『여성, 시하다』를 중심으로」, 임옥희 외,『우리 시대의 마녀』, 여이연, 2023, 111-122쪽.

50 「여성 작가가 낸「숙제들」」,『경향신문』, 1993.4.9.

51 유현미,「무소의 뿔처럼 결연한 고독 안의 희망」, 공지영,『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291쪽.

52 위의 글, 292쪽.

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일상의 감각을 뒤흔들 만큼 놀라운 것으로 비판적 경이라 이름붙일 만한 것들이었다.

비판적 경이의 측면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베스트셀러로 견인하였으며, 나아가 공지영을 '스타 작가'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54] 그런데 문제적인 지점은 이 텍스트에 '접촉'하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비판적 경이'를 통해 여성들이 텍스트에서 발견한 성폭력의 양상들이 공감의 수사학, 예를 들어 "'이것은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라든지,[55] "제 연배 여성들의 결혼과 그들이 결혼해서 겪는 문제를 그려서 그런지 저로선 공감하면서 읽었"[56]다든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내가 나날이 일상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연대의식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57]다는 등의 감상을 거치면서 다시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당연한 것으로 전환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감의 수사학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그동안 여성들이 스스로 언어화할 수 없었던 고통을 재현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여성의 상처를 타자화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58] 그러나 문제는 해방감이 공감의 언어를 통해 '범속성'으로 전환되면서 성폭력이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한국 여성이라면 응당 겪어야 할 통과 의례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이다. 범속성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배면에 깔린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53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84-385쪽.

54 손경목에 의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이어 『고등어』(1994)와 『인간에 대한 예의』(1994)가 성공한 것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영향으로 일군의 '공지영 독자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고등어 무소의… 인간에… 孔枝泳 소설 나란히 베스트셀러」, 『경향신문』, 1994.10.5.

55 유현미, 앞의 글, 291-292쪽.

56 조애리·이혜경·강영희·이명호·백지숙, 「좌담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만남, 뿌리내리기」, 『여성과 사회』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1994.1, 27쪽.

57 나은정, 「이달의 책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사회평론, 1993.3., 214쪽.

58 신나리, 앞의 글, 117-118쪽.

무딘 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 소설을 영화와 함께 세대와 결혼 담론을 중심으로 독해하게끔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59] 소설에서 여성의 고통받는 몸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범속성의 해석학은 이때 페미니즘 정치가 겪고 있던 난항을 보여주는데, 익숙한 폭력을 낯설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다시 증언 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60]

---

59 이와 같은 범속성은 상업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연극화한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는 여성 관객들이 더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기준으로 원작의 내용을 각색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소설에서 혜완이 초점화자였던 것과 다르게, "친구 세 명의 이야기를 같은 비중으로 끌고 가기로" 결정한 것은 "실제로 이 세 가지 타입 중 어떠한 삶을 사는 여성이 많을까"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꿋꿋하고 이성적인 혜완을 원작과는 달리 배경으로 깔고, 영선과 경혜를 전면에 부각"한 것이다. 조애리·이혜경·강영희·이명호·백지숙, 앞의 글, 28쪽. 공지영의 '대중성'이 여성문학 담론 내부에서 배치되고 이해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최가은,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참조. 여성주의 문화담론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영화와 함께 세대와 결혼 담론을 중심으로 독해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문예지, 「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8-233쪽.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담긴 80년대 학번 학생운동 세대들의 보수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강제적 이성애의 내면화로 분석한 연구로 배상미, 「학생운동의 유산에 존재하는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악어문학』 제89집, 동악어문학회, 2023 참조.

60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출간되었던 1993년, 여성의 전화 측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아내 구타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아내 구타 관련 입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 구타 수기'를 공모한다. 이문자, 「특집 「아내 구타 수기」를 공모하면서 "요즘에도 매맞는 아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틀』 제70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3.4.10., 6-7쪽.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곤혹스러움에 직면한다. "이번 수기 모집에 응모된 원고에서 예선탈락을 시킨다거나 본선에 오른 수기 중에서 순위를 매겨 일·이등으로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심사과정에 동참한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문장이 수려하거나 구성의 짜임새를 심사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었고, 매맞는다는 것이, 그 남편의 폭력성이 '아내 살해' 직전에 이르는 극렬함의 정도에 대한 변별도 될 수 없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등수를 가리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놓고 생각을 나누었으나 애당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수기 공모를 할 때의 약속 때문에 최우수작과 가작, 입선작을 가려놓았다. (…) 여기에 실린 수기가 우리 나라의 '매맞고 사는 아내'의 삶, 그 처절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경

이는 마찬가지로 고통을 여성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다분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소설이 '전화'라는 매체를 통해 혜완이 영선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타자의 고통과 접촉하고 이를 정치화하려고 했던 페미니스트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내적 갈등을 전면화하는 소설로 읽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 장면은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기호가 야기하는 '비판적 경이'의 순간을 충실히 묘사한다.

> 혜완은 마지막 단추를 풀던 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잡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어떤 예감이 짧고 강한 빗줄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그 예감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경혜의 목소리가 울렸다.**
>
> "칼로 자기 온 몸을 그었대, 영선이가 말야.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난리가 났었나 봐."
>
> **한숨인지 전율인지 모를 침묵이 경혜의 말꼬리에 가늘게 이어져 나왔다.** 혜완은 다 풀어 헤쳐진 블라우스를 자기도 모르게 다시 여미면서 되물었다.
>
> "뭐?…… 누가?"
>
> "영선이가!"
>
>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혜완은 반팔 아래로 드러난 자신의 맨살을 가만히 쓸어 내렸다. 싸늘한 전율이 그 맨팔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직은 그 말의 뜻이 무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았다. 그건 그녀의 버릇이었다. 언어와 감정이 늘 일치되어 오지 않았다.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들어 주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모욕이었던 줄 깨닫고 혼자 분해하는 일도 많았다.** 어쨌든 혜완은 전화기를 고쳐 잡았다. 마치 전화기를 꽉 움켜잡으면 이 이상스러운 소식의 정황을 한 손에 움켜잡기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자, 앞의 글, 251-253쪽.

(…)

"아무튼 아까부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애 아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상해, 왜 내가 이렇게 떨리고 무서운 생각이 드니?"

경혜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

아까 경혜가 말한 것처럼 혜완에게도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피에 젖은 시트라니. 온 몸을 칼로 그었다니…….

(…)

그녀는 현기증이 나는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언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칼, 뱀처럼 긴 상처들, 피에 젖은 시트…… 그리고 찢어진 박쥐우산.[61]

다소 긴 인용문이지만 위의 대목은 매우 정동적인 묘사들로 가득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혜완은 경혜가 영선의 자살 시도 소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떤 예감"을 느낀다. 이는 인지적 차원에서 포착되기 전에 "스쳐 지나갔"지만, 기실 영선의 자살 시도한 몸에 대해 혜완이 느낄 '잠재적 위협'을 미리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마수미에 의하면 위협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명확하게 위험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기에 위협은 훨씬 더 실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62] 따라서 혜완은 "싸늘한 전율"이라는 육감의 형태로서 잠재적 위협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언어와 감정이 늘 일치되어 오지 않았"고,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들어 주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모욕이었던 줄 깨닫고 혼자 분해하는 일도 많았다"고 그려지는데, 이는 그가 평소 느꼈던 부정적인 정동들이 제대로 언어화·

61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10-14쪽. 앞으로 인용시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62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98쪽.

개념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남성중심적인 언어가 여성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동을 제대로 의미화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혜완은 경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말할 때까지도 자신의 정동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다가 영선을 생각하고 "갑자기 공포가 밀려"옴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의 공포는 과거 "누더기처럼 찢겨져 있었"던 "영선의 우산"을 떠올리게 만들고, 이 오브제는 영선의 상처입은 몸으로 유비된다.(14) 그때는 자각하지 못했으나 찢겨진 우산은 영선의 자살 시도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제였던 것이다.

영선의 고통스러운 몸이라는 기호와 찢겨진 우산이라는 대상 사이에서 혜완의 '공포'는 강화된다. 그래서 그녀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치는 누군가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도 "침입자가 다가오는 것만 같은 공포를 잠깐 느"낀다. 그리고 "마치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들켜 버리면 무언가 파멸이 올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숨을 죽인다.(15) 주목해야 할 것은 영선의 고통에 찬 육체가 환기하는 공포가 혜완의 일상을 낯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혜완은 과거에 예사롭게 넘겼던 영선의 말을 다시 기억하고, 잠에 빠져든 순간에도 남편에게 처음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던 기억을 소환해 낸다. 또한 잠에서 깨어나서는 이혼했을 때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언어적 폭력을 떠올린다. 그는 "게으르게 누워서 이리저리 오늘 할 일을 생각하다가 마치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다. "영선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제야 구체적으로 혜완의 생각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20, 강조는 인용자) 이와 같은 대목은 '영선'의 고통스러운 몸에 접촉하면서 혜완이 현실을 이전과 같이 평범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영선의 고통받는 몸으로부터 시작된 비판적 경이는 혜완으로 하여금 영선의 육체뿐만 아니라, '매 맞는 여성들'의 몸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 커피를 내려놓았을 때 여자의 한쪽 팔에 든 멍자국이 혜완의 눈에 띄었다. 혜완의 시선을 의식하자 여자는 얼결에 셔츠를 끌어내리며 혜완을 향해 멋쩍게 웃었다. 혜완도 멋쩍게 웃어 줄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이 카페의 여주인이 내실 쪽에서 어떤 남자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

툭탁거리는 소리에 잠깐 들여다보았더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짓찧고 있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 뒤에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워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혜완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싸울 수 있는가를 감탄한 것은 나중이었고 도대체 왜 저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은 그보다 더 나중에 더 오래 더 골똘하게 혜완을 생각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 때리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애원하며 매달리는 것이었다.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찰진 소리가 나도록 뺨을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는 빌고 있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모욕감은 오히려 혜완에게 왔다. 무엇이 이 폭력 앞에서 여자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이 폭력 앞에서 비명조차도 지르지 못하게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일까. 뭐랄까 절망감이 먼저 엄습했고 이혼 무렵 남편에게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폭력이 혜완의 살갗으로 기억보다 먼저 돋아났다.

—제 아이를 죽인 여자!

혜완은 여자를 보내고 담배를 물었다. 맨살에 돋아난 소름들을 에어콘의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하려고 혜완은 몇 분간 끙끙대고 있었다. 아이를 생각하면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혜완은 커피에 설탕을 넣고 천천히 저었다. 우선은 영선의 일에 대해 스스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영선을 떠올리고 그 냉랭하게 자기를 방어하려던 박 감독을 생각하자 머리가 더 아파 왔다.

(…)

여학생의 시선이 돌아보는 혜완에게 와서 먼저 멎었다. 그녀는 돌아보는 혜완의 시선에서 수치를 느끼는 것 같았다. 혜완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다. 이십대에는 이 시간에 저렇게 남자가 뛰쳐나가

기도 하고 남아 있는 여자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일도 있다.

잠시 후, 여자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낮았지만 여자 아이는 분명한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37-38, 강조는 인용자)

혜완은 카페 여주인의 팔에서 방어흔으로 보이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그 여성이 동거인 혹은 약혼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충격으로 얼어 붙었던 혜완은 "왜 저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남자에게 "끊임없이 애원하며 매달리는" 여성에게서 모욕감을 느낀다. "무엇이 이 폭력 앞에서 비명조차도 지르지 못하게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일까."에 대한 혜완의 의문은 곧바로 혜완이 남편에게 당했던 언어적 폭력을 피부 표면에 '소름들'의 형태로 재현시킨다. 고통스러워하던 혜완은 영선과 그의 남편인 박 감독을 떠올리지만 이내 두통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남학생에 의해 수치심을 느끼는 여학생의 시선을 맞닥뜨린다. 이렇듯 혜완의 몸을 포함하여 여성의 고통받는 몸들의 순환은 이들이 각자 겪고 있는 폭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리즈 켈리의 '성폭력의 연속선(continuum of sexual violence)' 개념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 이때 '연속선'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다양한 사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공통적 성격으로서 '연속선'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학대, 협박, 강압, 침범 등의 위협과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 영향을 미치고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연속적인 일련의 요소나 사건으로서의 '연속선'은 여성이 겪는 학대, 협박, 강압, 침입, 위협과 힘 등의 범위를 기록하고 명명할 수 있게끔 하며, 남성의 행동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개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63] 이 중 후자의 의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켈리는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 과정에서

63 Liz Kelly, *Surviving Sexual Violence*, Polity Press, 1988, p.76.

구타를 당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근친강간이나 학대를 겪은 여성들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64] 기실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구별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성의 전화 측에서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했던 내용이다.[65] 따라서 영선, 카페 여주인, 혜완, 그리고 여학생의 고통받는 몸 위에 그려진 '연속선'은 성폭력이라는 개념 내에서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부적절함을 나타낸다. 켈리의 말처럼 모든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66] 이때 중요한 것은 혜완이 여학생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희미한 육체의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다.(40) 혜완은 영선, 카페 여주인, 그리고 여학생과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다. '희미한'이라는 형용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혜완은 이들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으며 가까스로 닿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완이 문단 후배가 겪은 성희롱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술집에서 "매를 맞은 여자"에게 어쩔 수 없이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장면은 그가 다른 여성들의 고통에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158) 그러나 이러한 애착은 경환, 그리고 선우와 같은 남성 인물에 의해 과도한 흥분이나,[67] 비뚤어진 관점으로 비판받는다. 특히 현재 혜완과 연인 관계에 있는 선우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혜완은 선우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누가 봐도 폭행을 당한 여성의 상처를

64 이 개념은 "극단적이고 강도 높은 형태의 폭력"에만 초점을 두는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여성들 스스로도, 법도, 남성들도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는 비동의적 성에 대한 경험을 의미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287쪽.

65 "결혼 전의 강간 가해자가 결혼 후에 아내구타자로 이어지는 점이나 아내구타와 아내강간이 빈번히 자행되는 점도 아내구타를 단순한 폭력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해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우섭, 「베틀 칼럼 아내구타의 심각성, 여성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 『베틀』 제63호, 한국 여성의 전화, 1992.7.10., 2쪽.

66 Liz Kelly, op.cit., p.76.

67 "—당신은 어떤 때 보면 꼭 인류 절반 여성의 대변인인 것만 같아…… 자기 일도 아닌데 흥분하고.
아직 사이가 좋았을 시절에, 남편은 가끔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여성 단체에 다녀와서 남편에게 매 맞는 여자의 이야기들을 그에게 말해주면 그렇게 대꾸했던 것이다."(24)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어딘가에 몸을 부딪친 까닭에 생긴 것으로 재해석한다.[68] 그런데 이러한 무지의 가장은 방송부 선배가 혜완, 경혜, 영선에게 세 다리를 걸치면서 그들을 대상화하고 서로 비교하게 만든, 그 입사 의식에서부터 혜완이 체득해야만 했던 것이기도 하다.[69] 혜완은 방송부 선배가 "경혜의 어깨에 한 팔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으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한다. 이때 혜완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감정의 가면"이었다.(30) 이는 약자로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어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진짜 감정을 속인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경환과 선우 모두 혜완에게 다른 여성의 고통에 정동되지 말 것을 주문함으로써 무지를 가장하는 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68 "여자가 그렇게 화장실로 떠나고 난 후 선우와 혜완의 눈이 맥주병이 어지러운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선우는 말하는 것만 같았다.
—넌 비뚤어지고 있어.
혜완은 얼른 눈을 내리깔고 생각했다. 자꾸만 나쁜 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혜완은 문득 겁이 났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어딘가에 몸을 부딪혔는지 모른다. 하필이면 눈두덩이를 부딪히고, 그래 눈두덩을, 맞은 게 아니고 부딪혀서 아팠고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슬퍼 보이고 온몸이 아프고…… 그럴지도 모른다."(158)

69 김미지는 방송부 선배가 "남성에 대한 최초의 환멸을 선사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의 농락이 여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훼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성다움과 매력을 놓고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미지, 「『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현대소설연구』 제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4쪽. 방송부 선배가 야기한 상처가 혜완에게 무지의 가장을 요구했다는 점은 셀크남 종족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대학살과 성년식을 떠올리게 한다. 사라 세파이에 의하면, 모계 사회 당시 셀크남 여성들은 성년식에서 가면을 쓰고 영혼의 역할을 맡았었다. 그런데 어느날, 셀크남 남성들은 그 영혼들이 실은 여성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화가 난 남성들은 여성들을 학살하고 성년식을 독점한다. 겨우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면을 쓴 영혼들이 실제로는 남성들임을 알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 무지를 가장해야 했다. 남성들 역시 여성들이 무지한 채로 남아있다는 신념을 가장한다. 이는 가부장제가 어떻게 기만과 공적인 비밀에 의해 기능하는지를 드러낸다. Sarah Cefai, "Feminist Aesthetics of Resistance", Todd W. Reeser, *The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Affect*, Routledge, 2022, pp.227-228.

이다. 심지어 선우는 혜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까지 비판하기도 한다.[70] 이 지점은 여성이 자기의 고통을 말하는 것에 대해 혐오하는, 여성의 고통을 타자화하는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한 페미니즘 정치가 싸워야 했던 또 하나의 대상이 '기만'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때 세 여성 인물 중 무지의 가장, 다른 말로 '숙련된 은폐(skilled concealment)'의 기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 인물은 바로 '경혜'이다. 경혜는 혜완의 이혼뿐만 아니라, 영선의 자살 시도 소식도 남편으로부터 숨긴다. 즉, 혜완과 영선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71] 경혜의 이러한 면모는 "적어도 경혜년같이 생글거리면서 살 수 없는 너랑 나랑은 서로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273)라는 영선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혜완과 영선을, 경혜와 구별짓게 만드는 측면이기도 하다.[72] 그렇지만 혜완과 영선 모두 '숙련된 은폐'에 능하지 않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작품은 혜완의 입장에서 영선이 얼마나 불가해한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혜완은 처음에는 광기로 표출되는 영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영선의 고통은 파리 유학 시절, 남편이 후배와 실수로 잤다고 고백한 이후 솟아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15) 영선에게 이러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는 선행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선의 부모님 삶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종속으로 점철된 역사였다. 영선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저지른 불륜으로 인

70 "이런 말하면 너한테 또 상처가 될 줄은 알지만, 빌어먹을 그놈의 상처는 왜 그렇게 잘 생기는지…… 어쨌든 난 니가 이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본 일이 있고 경환의 옛날 아내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알았던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서혜완이만 바라볼 뿐이야.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는 쪽은 언제나 너야. 언제나 그것 때문에 그 빌어먹을 상처를 입는다고 날마다 질질 짜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니가 다 해결 못하는 열등감이 풀릴 때까지 강아지처럼 니가 무슨 짓을 하든 꼬리나 흔들고 있을까?"(77)

71 Sarah Cefai, op.cit., p.230.

72 물론 경혜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의 부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만은 모르는 척하는 데 실패한다. 이를 고려하면 세 여성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무지를 가장하지 못한 셈이다.

해 어머니가 겪는 고통은 “너무 욕심이 많고 대가 세고 고집불통이고 여자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영선은 “고집도 부리지 않았고 욕심도 내지 않으려고 했고 여자답게 살고 싶었”지만 박감독도 영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다.(116-117) 그러나 영선의 광기는 계속해서 영선을 혜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낸다. 더욱이 영선이 혜완의 “초라함”을 건드리면서 혜완은 자신의 초라함의 역사에서 기인한 ‘분노’의 정동을 분출한다.(273)

> —다시 말할까? 나가!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남자들이, 그중에서도 박감독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리고, 니가 얼마나 그 가련한 희생자인지 니가 얼마나 억울한지 온 세상에 대고 외쳐! 알겠니? 거기서 내 이야기는 빼고…… 넌 그랬지만 난 순교자가 아니었어. 그러니 난 억울하지 않아, 적어도 너처럼 억울하지는 않아!
>
>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던 말이 혜완의 입에서 점점 커다랗게 소리치며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
>
> —이제 더 이상 어리광 피우지 말아! 이제 더 이상 어리광 피우지 말라구! 너 혼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니가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수습해. 그도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한 거기서 해결해…… 누추하지 않게 해결해!(275)

혜완은 영선에게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너 역시 네가 그토록 경멸해 마지 않던 재투성이 신데렐라에 불과해.”라는 선우의 말을 떠올린다.(276) 이러한 의미에서 영선에게 혜완이 내뱉은 “너 혼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니가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수습해.”라는 발언은 “여자로 태어난 이상 넌 그것과 당당히 맞섰어야 했어…… 혼자서라도 우선 혼자서라도……”라는 선우의 말과 공명한다.(255) 이때 선우는 정신과 의사인 친구로부터 들은 중년 사내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성은 우울할 때마다 철로변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본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성공했지만 노을만 보면 며칠씩 우울증에 빠진다. 의사 친구에 의하면 그 남성을 치료할 방법은 “그 철로변

의 노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다시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혜완은 선우가 들려준 이야기에 빗대, "그가 그 노을을 다시 살려고 돌아가 보니 거기엔 그와 같은 소년"이 앉아 있었고,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년은 여전히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혜완은 "그럴 때 그는 혼자서만 그 노을을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문제 제기한다.(256) 이렇듯 혜완은 혼자서 당당히 맞서라는 선우의 주문에 타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었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혜완은 끝내 영선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완의 면모는 이 당시 페미니즘 정치가 고통에 대한 애착과 기만 사이에서 위태롭게 수행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4 잿더미에서 나를 꺼내줘

> **혼자서는 비명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비명이라든가 신음소리라는 건 또 하나의 언어였다. 언어는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었다.** 혜완은 엎드린 채로 구겨져 떨어져 버린 테이프를 뜯어 냈다. 이제는 의자의 다리를 고치는 데 아무 쓸모가 없는 찐득찐득한 녹색테이프를 풀어 버리고 혜완은 의자를 일으켜 세웠다. **네 개의 다리 중 세 개는 멀쩡했지만 부러진 한 개의 다리 때문에 의자는 세워지지 않았다. 혜완은 그것을 벽에 가지고 가서 기대 보았다. 그러자 의자는 꼿꼿이 제 모양을 유지했다.**(263-264, 강조는 인용자)

혜완이 카페 여주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왜 저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위 인용문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여성이 비명을 지를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며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혜완 역시 영선이 기댈 수 있는 벽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혜완은 도리어 영선이 남편에 편승하여 성공을 누리려고 했음을 공격했었고, 이때 "너 역시 네가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던

재투성이 신데렐라에 불과해.”라는 선우의 말이 오버랩된다.(276) 영선은 혜완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망연해 하면서도 실은 자신 또한 스스로에 대한 혐오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고백한다. 이후 영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선의 비명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마지막까지 조성되지 못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영선의 장례식장에서 혜완이 홀로 걸어나오는, 이 작품의 결말은 “세상으로부터 괴리된 여성의 독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73]

그렇지만 영선의 장례식장에서 혜완은 영선이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말인가 할 듯 할 듯하다가” 전화를 끊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이 하고 싶어했었던 말은 절대적인 무지(無知)의 영역으로 남겨진다. 이는 누구도 영선의 고통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혜완은 자신을 포함한 세 여성이 모두 억울함이라는 정동을 느꼈다는 점을 알아차린다. 이때 이들의 억울함이 각기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점, 경혜의 경우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자기 몫을 남겨야 한다는 점을 딸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혜완의 경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영선의 경우 억울함의 원인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전제하는 것이 허상에 불과함을 알려준다. 더욱이 혜완은 “영선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73 김미라는 이 작품의 결말이 “세상으로부터 괴리된 여성의 독립”을 암시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시각을 비판하며, “미래에 다가올 ‘화해’를 위해 여성이 자신이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진정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혜완이 아버지에게 이해를 요청하는 대목이나 박 감독에게 연민을 품는 장면을 꼽는다. 김미라,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모순성에 대한 심리적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88호, 현대소설학회, 2022, 71-73쪽. 본고 역시 선행연구들의 시각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혜완이 남성들과의 ‘화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etsy Stanko에 의하면 남성의 폭력에 관한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남성의 행동은 일탈적인 것(따라서 해로운)과 전형적인 것(따라서 해롭지 않은)으로 쉽게 양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남성의 전형적인 행동에 의해 여성은 훼손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이는 남성의 전형적인 행동과 일탈적인 행동 사이에 연속선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Liz Kelly, op.cit., p.75. 이러한 의미에서 혜완이 남성 인물들에게 이해나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 역시 성폭력에 대한 기만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혜완은 여성의 고통에 대한 애착과 기만 사이에서 진동하는 인물인 것이다.

라도 지금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했”지만, “다들 모른 척하고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다.(289) 이러한 상황은 영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리키는데, 이 점이 여성들 간의 고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고통의 윤리가 결국 ‘이해할 수 없음’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했을 때, 상대를 대신해 행동하겠다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전유했을 때만 움직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74]

이 텍스트가 남기는 메시지는 윤리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한 해석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표현에 집중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혜완이 경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넌 결국 여성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는 남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에 불과했던 거야.”라는 선우의 말을 떠올리면서 영선에게 다른 삶을 살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290)

> 언젠가 불경을 읽다가 영선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
>
> -이 말 참 좋지? 들어 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 혜완도 좋다고 말했었다.
>
> -넌 결국 여성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는 남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에 불과했던 거야.
>
> 그랬다. 영선은 그 말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다. 경혜처럼 행복하기를 포기하고, 혜완처럼 아이를 죽이기라도 해서 홀로 서야 했었다. 남들이 다 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그냥 잘하려면 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욕심 같은 건 일찌감치 버려야 했었다.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진창에서 몸부림치지 말아야 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
>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재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74 사라 아메드, 앞의 책, 80쪽.

없었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모욕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녀 자신의 말대로 누구도 자신을 발닦개처럼 밟고 가도록 만들지 말아야 했다.

혜완은 어린 아이처럼 맨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아 내면서 그 공허한 뒤뜰을 빠져 나와 혼자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290)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는 그 자체로 영선과 혜완이 살아서 '접촉'했었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따라서 혜완이 흘리는 눈물은 그 자체로 영선의 몸이 혜완에게 남긴 자국이다. 물론 선우의 말도 혜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혜완이 영선에게 귀 기울여야 했었다고 강조하는 "그 말의 뜻"은 단연코 선우의 말이 아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우의 말은 불교의 경구와 대립한다. 선우는 혜완의 수동성을 공격하고 있지만, 혜완이 불교의 경구를 통해 영선에게 강조하는 바는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즉, 혜완은 여러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혜완이 영선에게 다른 삶을 살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영선의 고통에 선행하고 있는, 여성이 종속당해 온 역사를 초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급진적인 현재를 만들어내라는 정치적 요구이다.[75]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현재는 고통과 피해의 역사에 대한 망각을 대가로 한다. 이는 영선의 육체가 살아낸 모욕과 수치의 역사까지 망각해버릴 위험이 있었다. 둘째는 영선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뜻이다.[76] 당시 여성 운동 내에서 논의되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따르면 영선은 분명 피해자이다. 그런 영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75 위의 책, 386쪽.

76 공지영의 소설들에서 '신경증적 욕구'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 정신분석학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지혜, 「공지영 소설에 나타난 '신경증적 욕구'와 '선택'의 문제」, 『문학치료연구』 제46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참조. 인물들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미라, 앞의 글 참조.

자기결정권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이 여성 운동 내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법의 언어에서 빌려온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77] 법이 무엇이 폭력적인 성적 행동인지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78] 자기결정권 개념은 영선의 고통의 책임을 전적으로 영선에게만 물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가 영선의 죽음으로 인해 공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선은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는 영선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비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협의의 성폭력 개념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영선의 고통과 죽음은 공론장에서 언급될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망자가 고통받는 것은 죽음을 죽기 때문이 아니라, 망각으로 죽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79]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비명'의 형태로 남은 영선의 고통과 죽음이 끝내 애도받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혜완은 영선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했지만, 모두 모른 척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도의 불가능성은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에서 문학이 여성의 고통받는 몸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혜완이 공허한 뒤뜰을 빠져 나와 혼자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문장으로 끝맺는데, 이것은 엘렌 식수의 표현을 빌리면,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학적 제스처"였다. 바꿔 말하면 이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지적대로 여성들 간의 연대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80]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보여주는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1990년대 페미니즘을 운동으로 만드는 동력이 오히려 실패에 있었음을 가리킨다.[81]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서 아내 폭력

77 신상숙(2008), 앞의 글, 23-25쪽.
78 조애나 버크, 앞의 책, 28쪽.
79 엘렌 식수, 앞의 책, 65-66쪽.
80 엘렌 식수, 앞의 책, 15, 25-27쪽.
81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77-378쪽.

이 포함되지 않자, 여성의 전화 측은 별도로 아내 구타 관련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199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실패가 또 다른 실천의 가능성을 여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의 운동성을 그 자체로 증명하는 텍스트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_____, 『상처 없는 영혼』, 도서출판 푸른숲, 1996.

나은정, 「이달의 책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사회평론, 1993.3.

조애리·이혜경·강영희·이명호·백지숙, 「좌담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만남, 뿌리내리기」, 『여성과 사회』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1994.1.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린비, 1993.

『나눔터』, 『베틀』

단행본

임옥희 외, 『우리 시대의 마녀』, 여이연, 2023, 109-132쪽.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96-125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5-464쪽.

샹탈 무페, 서정연 역, 『경합들』, 난장, 2020, 33-90쪽.

엘렌 식수, 이혜인 역, 『아야이! 문학의 비명』, 워크룸 프레스, 2022, 15-106쪽.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오월의봄, 2018, 7-16쪽.

조애나 버크, 송은주 역, 정희진 해제, 『수치』, 디플롯, 2023, 28-49쪽.

프루던스 체임벌린, 김은주·강은교·김상애·허주영 역, 『제4물결 페미니즘: 정동적 시간성』, 에디투스, 2021, 81쪽.

Liz Kelly, *Surviving Sexual Violence*, Polity Press, 1988, pp.74-76.

Todd W. Reeser, *The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Affect*, Routledge, 2022, pp.227-236.

논문

김미라,「공지영의『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모순성에 대한 심리적 고찰」,『현대소설연구』제88호, 현대소설학회, 2022, 49-80쪽.

김미지,「『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현대소설연구』제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35쪽.

김은하,「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여성문학연구』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31-155쪽.

문예지,「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공지영의『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제6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1-257쪽.

박지혜,「공지영 소설에 나타난 '신경증적 욕구'와 '선택'의 문제」,『문학치료연구』제46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81-220쪽.

배상미,「학생운동의 유산에 존재하는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공지영의『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동악어문학』제89집, 동악어문학회, 2023, 165-193쪽.

소영현,「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현대문학의 연구』제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557-589쪽.

신상숙,「젠더, 섹슈얼리티, 폭력-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페미니즘 연구』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45쪽.

_____,「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페미니즘 연구』제1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267-301쪽.

최가은,「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42-374쪽.

Abstract

Feminist Politics and Suffering Bodies of Women in the 1990s
–Focusing on *Loom, Nanumteo, and Go Alone Like a Rhino's Horn*

Lee, Soyoung

This treatise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st politics and suff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tact' to reconstruct the feminist turn of the 1990s.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bates on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in the early 1990s, aiming to closely observe how feminists responded to, interpreted, and translated the suffering of others. During this time, the newsletters *Loom, Nanumteo* of women's organizations relied on the culture of testimony to conceptualize, agenda-setting, and legislate women's suffering, which in turn accumulated negative affective values around the 'suffering bodies of women'. Meanwhile, *Go Alone Like a Rhino's Horn* frequently depicted scenes of feminists contacting the suffering bodies of women, thereby presenting a broad concept of sexual violence. However, in the realm of critical discourse, this text was not connected to the movement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Nonetheless, it is noteworthy that this work not only embodied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but also portrayed feminists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s between attachment to and deceit of suffering. Although it was not connected to contemporary feminist politics, the text presents a political message by revealing that the role of literature could play regarding the suffering bodies of women was to show a gesture of not accepting death as the end.

Key words: contact, suffering bodies of wome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Loom, Nanumteo*, culture of testimony, affective values, *Go Alone Like a Rhino's Horn*,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attachment, deceit, literature

논문투고 / 2024.07.15.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